“진정한 나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76번째 광복절 맞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어느덧 90세…일본 사죄 못 받고 세상 떠날 생각하면 너무 원통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소식 우울…피해자 지원 법률안 준비 위안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해 국권을 회복했다. 이날을 기념해 매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린다. 올해로 76돌을 맞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0·사진) 할머니도 올해로 76번째 광복절을 맞는다. 하지만 반갑지는 않다. 해가 거듭될수록 원통함만 쌓여서인지 올해는 더 서글프다고 했다.

1931년생인 양 할머니는 올해로 90세다. 꼭 살아서 사과를 받자며 굳게 약속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수년간 함께 소송을 벌여왔던 동료 중 남아있는 이들도 손으로 꼽는다.

양 할머니는 “대한민국 광복은 76년 전에 됐을지언정 진정한 나의 ‘광복’은 아직 안 왔지. 광복절이 가까워지면 더 부아가 치밀어오르고 눈물이 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양 할머니는 광복절이 다가오면 왜 그런지 가슴이 떨린다고 했다. 일본 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매일 가혹한 노동도 견뎌냈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수모와 멸시도 극복해냈는데도, 광복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양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는데도 일본이 사과 한마디 안하는데, 잠이 오겠어?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인데…”라고 했다. 양 할머니는 “괜한 기대감 때문인 지도 몰라”라며 “나이를 90살 넘게 먹었는데도 아직 속이 없나봐”라고 했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이 광복절을 맞아 사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항상 들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사죄는 76년이 되도록 기약이 없다. 오히려 최근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거론되면서 자칫 오는 10월 30일 이후에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할머니 동료들의 소송 제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소식이 우울하기만 하다.

양 할머니는 “(소멸시효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전해 들었다. 그렇게 (끌고가 일을 시켰으면) 했으면 사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 나라 아니냐”면서 “사죄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시간 끌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해결된 게 없는데, 잊혀지는 것 같아 더 서글프다고 했다. 자신이 잊혀지면 일본이 한 짓도 잊혀지는 것 같아서다.

양 할머니는 “예전 같으면 광복절 행사에 초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와주겠다는 정치인들도 많았지만 이젠 불러주는 곳도 없고 나만의 이야기로 잊혀져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도 접했다. 정치권에서 광복 76주년을 앞두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들어서다. 현재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보호·지원하고 기념하는 법률안을 준비중인 상태다.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다고 했다.

“솔직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런데 사죄 한마디 못 받고 세상 떠날 생각하면 너무 원통해서….” “그래서 더 힘을 내, 살려고.” 양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라고 적은 것은 단순 오타”라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불출석에 화난 재판장

“다음에 출석 안하면 구속해서 재판할 것”

변호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 기소 1년…1심도 마무리 못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판사),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변호사)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가 12일 법정에 나온 피고인측 변호사를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애초 계획하고 사전에 예고했던 일정을 멋대로 따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측을 향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이상동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은 이 회장이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가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성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2016년~2017년 사이 주류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공직자에게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제공하려고 의사를 표시한 혐의(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위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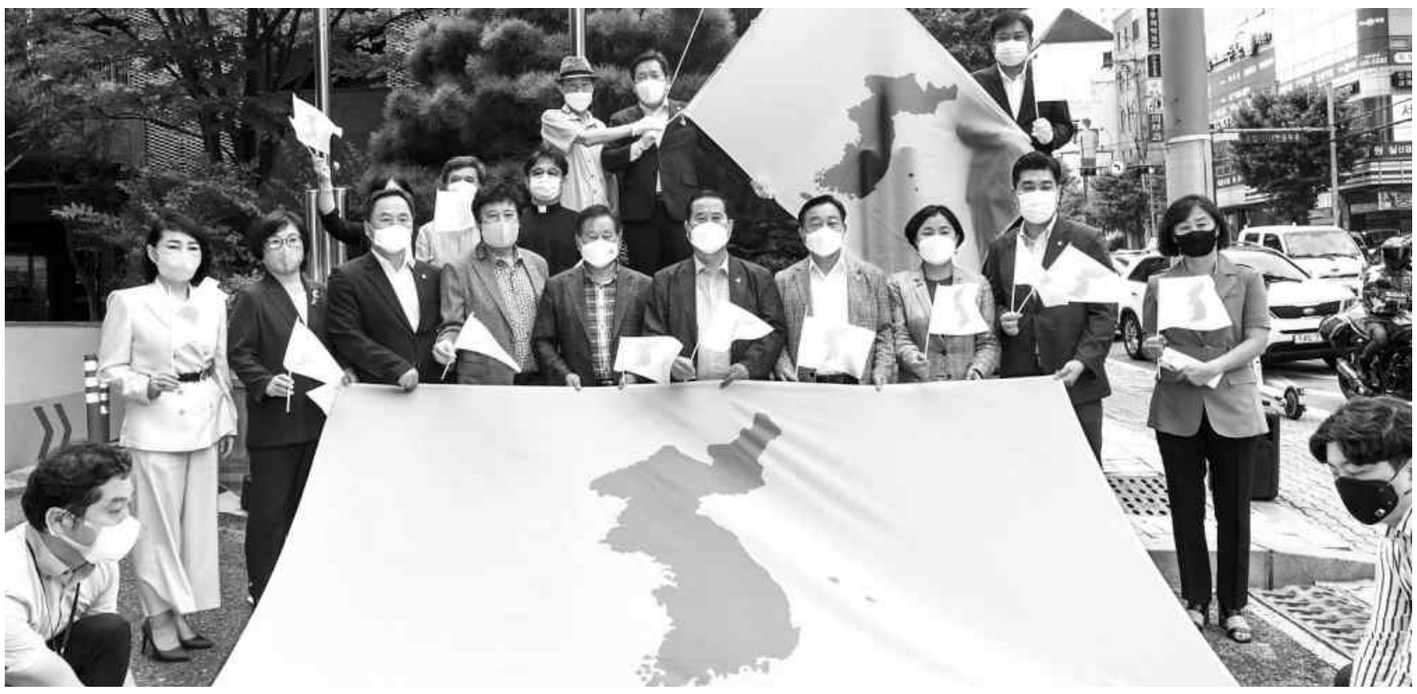
하지만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년이 다가도록 1심 재판이 여태껏 마무리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5월 변호인을 바꾸면서 두 차례나 재판이 미뤄졌다. 피고인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서도 세 번째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그대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계획했던 증인 신문도 미뤄졌다. 변호인은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록 검토 필요성’ 등을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을 향해서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안좋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에 결심(結審)공판을 하겠다”면서 “출석 안하면 구속(영장 발부)해서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16일 오전 10시50분 열린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5월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지만 불법 선거 의혹으로 법원에 제기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염원 담은 한반도기 게양 12일 광주시 남구 국기게양대 앞에서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한 박희율 남구의장 등 남북교류협력위원들이 한반도기 게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구청 제공〉

전 북구의원·현직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7년전 개발 정보 이용 시세 차익 경찰, 구청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전직 기초의원과 현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동부경찰은 12일 오전 북구청 도시건축과 사무실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당시 담당자였던 공무원도 임의동행 형태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북구 안팎에서는 전직 북구의원과 북구청 현직 공무원이 지난 2014년께 개발 정보를 이용, 북구 용전동 일대 농지를 구매했다가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이 개발 전 마을 진입로 개설 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활용해 해당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경찰이 당시 개발 자료와 토지 구매·판매 시기 등을 토대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전직 북구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북구 간부 공무원의 연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5465	1	목포시 산정로298, 101동 10층 1009호 [연산동,현대아파트] 75.42㎡	아파트	75,000,000 75,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 5519	1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547-1 413㎡	대	76,484,080 76,484,0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신안군 비금면 외촌길 33-12 1층60.5㎡ 2층22㎡ 제시외 창고 등 40.52㎡[물건번호1:매각제외구조물[이동식저온창고1동]있음.매각포함되는수목있음[목록에는제시외수목으로표시하지않음]]	단독주택		
2020타경 6321	1	목포시 산정동 1320-10 165.3㎡	대	115,550,400 115,550,4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목포시 동명마을길8번길 3-3 단층66.11㎡ 제시외 창고 등 53.2㎡	단독주택		
2020타경 55354	1	영암군 미암면 신포리 450 357㎡	대	2,650,920 2,650,92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영암군 미암면 기동길 15-3 단층63.2㎡ 부속 단층창고18.2㎡ 제시외주택0.71㎡[제시외건물[㉠주택일부4.5㎡중채무자지분전부]매각포함.물건번호1:공유자김남순지분21/133전부]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5137	1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243-2 896㎡ 제시외수목[제시외건물[㉠주택52.1㎡,㉡가추12.5㎡,㉢가추25.2㎡,㉣가추24.3㎡,㉤가추 15.6㎡]매각제외]	대	24,796,000 24,796,000	매각포함되는수목있음[목록에는제시외수목으로표시하지않음]
	2	동소 371-1 400㎡[제시외건물[㉥주택 56.7㎡,㉦보일러2㎡]매각제외]	전	9,200,000 9,2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
2020타경 5595 2020타경 55712 [중복]	1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540-6 185㎡[매각제외구조물[벽돌조담장]및조경수[소나무1주]있음[감정평가서참조].타인[인접지538-4]이주택마당의일부로점유중]	대	31,635,000 31,635,000	물건지상시설된부합물인석재바닥매각포함.물건은도시계획도로에일부저촉됨
2020타경 5656	1	함평군 함평읍 가동리 80-2 1491㎡ 제시외입목[일부연고자미상분묘3기소재.타지번[가동리81-2]일부와함께전으로이용중.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8,230,700 28,230,700	매각포함되는수목[조경수]있음[목록에는제시외수목으로표시않음]
2020타경 5786	1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907-10 22004㎡[현황묵전으로일부도로및유지로이용중]	전	123,222,400 123,222,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793	1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17 1104㎡[물건은접도구역저촉이며현황휴경지상태]	전	16,449,600 16,449,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803 5574㎡[매각포함되는수목[매실나무]있음[목록에는제시외수목으로표시하지않음]]	전	87,108,600 87,108,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6086	1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산114-15 165㎡	임야	2,689,500 2,689,500	일부연고자미상분묘소재
2020타경 6390	1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1031-14 3002㎡	답	63,942,600 63,942,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4955	1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356-1 1059㎡[매각제외수목[조경수]있음.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41,301,000 41,301,000	일부연고자미상분묘수기소재.2020타경6208[중복]
2020타경 55316	1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287-7 2350㎡	답	35,250,000 35,2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55354	2	영암군 미암면 신포리 345-4 1896㎡[공유자김남순지분21/133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5,389,200 5,389,200	지분매각.지적도상맹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3	동소 346 1517㎡[공유자김남순지분21/133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지분매각]	전	4,790,000 4,790,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 5410	2	목포시 남악1로52번길5 1층 110호[옥암동,옥암빌딩]139.5㎡[물건1[제109호],[제110호],[제111호]은벽체구분없이일체의일반음식점으로이용중.각건물은복원이물리적으로가능하나상당한비용이발생될것으로추정[자세한내용은별지2021.3.11자사실조회회신서참조]]]	근린시설	1,086,000,000 1,086,000,000	등기부상도로명주소는목포시남악1로52번길5이나건축물대장상도로명주소는목포시남악1로52번길7
	3	동소 1층 111호[옥암동,옥암빌딩] 149.5㎡[물건1[제109호],[제110호],[제111호]은벽체구분없이일체의일반음식점으로이용중.등기부상도로명주소는목포시남악1로52번길5이나건축물대장상도로명주소는목포시남악1로52번길7.등기부상전유면적은149.5㎡이나집합건축물대장상전유면적은159.85㎡[증축부분[2009.6.30.신고,벽돌구조10.35㎡]]로차이가있음]	근린시설	1,235,000,000 1,235,000,000	각건물은복원이물리적으로가능하나상당한비용이발생될것으로추정[자세한내용은별지2021.3.11.자사실조회회신서참조]
[자동차,중기]					
2021타경 51014	1	사용본거지: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죽서로22[남악리] 등록번호:68보6919 차명:코란도C 연식:2016 주행거리 39,830km	자동차	12,000,000 12,000,000	보관:전남무안군일로읍지장리535번지
2021타경 51946	1	사용본거지: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9 105동 1504호[옥암동, 부영애시앙] 등록번호:29라3819 차명:카렌스 연식:2015 주행거리:184,311km	자동차	9,000,000 9,000,000	보관:전남무안군일로읍지장리535번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8. 30.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9. 6.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공정배